

나주의 밤 축제 '문화유산 야행' 전시·체험·공연 풍성

'8夜' 테마 27~29일 읍성일원 지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금성관,향교 등 야간 개방
'빛의 향연' 레이저 퍼포먼스
체험 부스 매일 오후 6~10시

전라도 천년 역사의 중심지 나주시에 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밤거리 축제가 열린다. '8夜' 테마로 전시·체험·공연 등을 선보이며 주·야간 문화유산을 개방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나주 읍성 일원에서 '2024년 나주 문화유산 야행' 행사를 연다.

나주문화유산 야행(夜行)은 문화유산 가치 재조명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행사로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국가유산청, 전남도, 나주시가 주최하고 나주문화유산야행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축제 기간 작은 서울, 소경(小京)으로 불리었던 나주읍성 안 금성관, 나주향교, 나주목사내야 등 문화유산을 야간시간대 개방해 가을밤 고즈넉한 낭만을 선사한다.

올해는 '천년의 빛, 나주를 비추다'라는 주제로 '빛'을 테마로 한 8야(夜) 프로그램 마련했다.

야행 행사는 27일 오후 7시 나주 금성관에서 막을 올린다.

궁중에서부터 평민까지 다양한 의상을 감상할 수 있는 조선시대 복장 패션쇼와 무예시범, 국악공연 등이 진행된다.

'빛의 향연'을 주제로 나주의 찬란했던 천년 역사의 빛이 시간을 거슬러 현재의 나주 운수리를 비추는 레이저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임진왜란 당시 호

남 최초 근왕의병을 일으킨 김천일 선생의 의병장 출정식 퍼레이드를 최초로 시연할 계획으로 의향 나주의 뿌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 테마인 '8夜'는 △밤에 비춰보는 문화유산 '야경'(夜景)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사'(夜史) △공연 이야기 '야설'(夜說) △밤에 걷는 거리 '야로'(夜路) △진상품 장사 이야기 '야시'(夜市) △밤에 보는 그림 '야화'(夜畵) △음식 이야기 '야식'(夜食) △문화유산에서의 하룻밤 '야숙'(夜宿)'으로 구성된다.

개막식, 메인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사진전 전시와, 시식·만들기 체험, 문화·예술 공연 등이 축제 기간 다채롭게 진행된다. 부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밤에 보던 더 아름답고 웅장한 천년고도 나주의 문화유산들을 이번 야행을 통해 만나보시길 바란



다"며 "이번 행사는 문화유산이 시민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 더 친밀하게 다가오고 걷고 싶은 나주의 매력을 드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곡성군, 신품종 단감 육성 매진
선진농가 방문 견학 등

곡성군이 '태추'와 '감풍' 등 신품종 단감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달 28일 단감 재배농업인 30여 명과 함께 전남 고흥군과 구례군의 '태추', '감풍' 선진농가를 방문해 현장 견학을 실시하기도 했다.

2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신품종 단감 생산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 72농가, 23ha 규모의 재배면적을 확보한 상태며 2025년까지 5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한 공동선별 출하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 경쟁력 강화도 추진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농업인들은 신품종 단감의 전정 방법, 적과 기술, 토양 관리 등 세부적인 재배 기술을 학습했다.

'태추'와 '감풍' 품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배 관리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선진농가의 병해충 종합관리 시스템을 견학하며 효과적인 방제 전략을 습득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신품종 단감 재배단지 육성을 통해 추석 시장과 고품질 단감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재배기술 지도와 교육을 통해 곡성군을 전국 최고 품질의 단감 생산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추'와 '감풍' 두 신품종은 기존 '부유' 품종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품종은 '부유'보다 과실 크기가 크고(380~413g), 수확 시기가 10일 이상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곡성=김대명 기자

말기 꽃눈 분화 현미경 검사 지원 장성군농업기술센터, 20일까지

장성군이 20일까지 말기 꽃눈 분화 검사를 지원한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잎눈에서 꽃눈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말기묘를 본포장에 옮겨 심어야 고품질 말기 수확이 가능하다.

말기 꽃눈 분화 검사는 눈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말기묘 생장점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꽃눈 분화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포장에 옮겨 심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꽃눈 분화 현미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원기간 내 말기묘 3~5주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가져오면 된다.

현재 장성군의 말기 재배 규모는 219농가 89ha로 전남도 2위 수준이다.

박인정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말기 꽃눈 분화를 확인한 뒤 포장에 옮겨 심어야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재배시설 지원, 생육단계별 현장재배기술 지원 등 말기 안정 생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함평군, 23일까지

함평군이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23일까지 21일간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이 발생한 2113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7월 1일 기준으로 1㎡당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는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지가의 적정여부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10월 31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부담금의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장성군, 30일까지

장성군은 환경개선부담금법에 따라 지역 내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3000여 건, 1억14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하는데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앞선 1~6월 사용분에 따른 부과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로 은행, 인터넷(위택스, 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내에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영광 지역 청소년들이 농구경기를 펼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달 31일 해룡고 실내체육관에서 청소년 한마음 3대3 농구대회를 열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청소년 한마음 3대3 농구대회

영광군(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이 지난달 31일 영광해룡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청소년 한마음 3대3 농구대회를 개최했다.

2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영광지구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교류 활동 참여 기

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회식, 본경기, 여학생 자유투 대회, 청소년 댄스 동아리팀(핏어팟, 스테링)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농구대회는 12팀(고등부 8팀, 중등부 4팀) 50여명이 참여하여 토너먼트 방식

으로 진행돼 최종 고등부 'TOP' 팀, 중등부 '빅맨스몰' 팀이 우승했고 고등부 '여름엔 포카리' 팀, 중등부 '포크'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 공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함평군,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터미널 등 3개소

함평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함평전지전통시장, 함평공영터미널, 함평군공립요양병원 등 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 시설관리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시설물의 주



요 구조부의 균열 및 누수 등 결함 △소방·전기·가스시설의 관리 및 운영 상태 △비상구, 복도, 계단, 승강기 등 피난 통로의 상시 확보 여부 △시설 안전 및 법적 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됐으며 건축, 소

방, 전기, 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추석 이전까지 보수·정비를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명절 기간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제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